465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



This text was written by an Irish-born immigrant to Canada to comfort his mother in Ireland when she was going through a time of special sorrow. The role of prayer as a source of strength and consolation is underscored by its repeated use as a rhyme word in all three stanzas.

KOREAN

- 1 죄짐맡은 우리구주 어찌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무거운짐 우리주께 맡기세 아픈상처 위로하며 평화내려 주시니 우리주께 기도하여 모든짐을 맡기세
- 2 시험걱정 모든괴롬 없는사람 누군가 우리낙심 하지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진실 하신친구 어디다시 있을까 우리약함 아시오니 주께기도 드리세
- 3 근심걱정 무거운짐 아니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예수 주께기도 드리세 세상친구 멸시하고 너를조롱 하여도 예수품에 안기어서 참된위로 받겠네